

# '원정 8강' 향한 흥명보호, 북중미서 새 역사 쓴다

##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오늘 과달라하라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 격돌  
멕시코·남아공과 A조 편성·첫 경기 32강 분수령  
손흥민, 최다골 도전...배준호·김태현 부상 변수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한국-체코 전격**

**주장**  
FW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  
손흥민이 '파스트 앤스' 기능성, 톱스타로 부상  
월드컵 본선 출신 선수

**MF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MF 양인범** (베에노프 로테르담)  
**MF 양한준** (셀틱)

**WF 오현규** (베르더시)  
**DF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4월 12일 오전 11시** (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르카스 스타디움

**1승 2무 2패**  
역전 대승: 2018년 6월 친선경기 한국 2-1 승  
25위 FIFA 랭킹(9월 현재) 39위

**12위** 월드컵 본선 진출  
4강, 4위(2022년) 월드컵 최고 성적  
준우승(1934년, 1962년)

**6승 4무 4패** (아시아 3차예선 B조 1위)  
북중미 월드컵 지역예선 성적

**48팀** 참가 32강 토너먼트 경기, 32강 진출 및 사상 첫 월드컵 진출 목표

**북중미 월드컵** 출전 기록: 목표

**2006년** 독일 대회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 조별리그 통과 목표

**\*체코 선수명(가)이 부의 전부 포함**

**FW** 파트리크 시크 (레버쿠젠)  
**MF** 파타시 소우즈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MF** 파벨 홀츠 (뉘른베르크)  
**DF** 아문슬라프 프라하 (스파르타 프라하)

**주장**  
DF 라디슬라프 크레이치 (올버햄프턴 원더러스)

**연말 뉴스** 자료: 대한축구협회, 체코축구협회, 국제축구연맹(FIFA)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무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군다. 흥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이번 월드컵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규모가 크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이 공동 개최하는 첫 대회이자,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첫 월드컵이다.

조별리그는 4개국씩 12개 조로 나눠 치러지며 각 조 1·2위 24개 팀과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본선 진출 문턱은 낮아졌지만 이후 여정은 더 험난해졌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별리그 순위 역시 중요하다. 한국은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12일 체코전을 시작으로 19일 멕시코, 25일 남아공과 차례로 맞붙는다.

객관적인 전력상 개최국 멕시코가 가장 강한 상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체코 역시 유럽 예선을 통과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다. 남아공은 조 최약체로 꼽힌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체코와 멕시코를 상대로 승점을 확보하고 남아공을 반드시 잡아 조 1~2위로 32강에 직행하는 것이다. 반면 조 3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할 경우 대진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조 3위로 32강에 오르면 E조 또는 G조 1위를 상대해야 한다. E조에는 우승 후보 독일이, G조에는 강호 벨기에가 유력한 조 선두 후보로 거론된다.

반면 조 1위로 진출하면 다른 조 3위 팀을 상대한다. 조 2위로 올라가도 B조 2위를 상대하게 돼 비교적 수월한 대진이 예상된다. 흥명보호 감독이 명단 발표 당시 이번 대회 1차 목표를 '좋은 위치에서 32강 진출'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결국 체코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의 첫 경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첫 경기 패배 후 16강에 오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흥명보호 감독도 체코전을 사실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표팀은 조 추첨 직후부터 체코 전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체코는 2006 독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파판의 치바스 바에 베르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본선 무대를 밟은 유럽의 북병이다. 유럽 예선 과정에서 페로제도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사령탑 교체 이후 조지력을 회복하며 플레이오프를 통과했다.

특히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상대한 플레이오프에서는 특유의 끈질긴 수비와 강한 정신력을 앞세워 모두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전력의 핵심은 장신 공격수 파트리크 시크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활약 중인 시크는 유로 2020 당시 하프라인 부근에서 터뜨린 초장거리 골로 세계 축구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결정력과 제공권을 모두 갖춘 공격수다.

여기에 리옹에서 뛰는 파벨 솔츠, 올버햄프턴 소속 수비수이자 주장인 라디슬라프 크레이치도 경계 대상이다. 크레이치는 플레이오프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

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무엇보다 체코는 높이가 강점이다. 대표팀 명단에 포함된 선수 중 190cm 이상 선

수가 무려 10명에 달한다.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활용한 고공 공격이 주 무기다. 한국으로서는 김민재(원형)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 직전 수비진에 변수도 발생했다. 원발잡이 센터백 김태현(가시마)이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쳐 조별리그 출전이 불투명해졌고, 배준호(스토크시티) 역시 부상 여파로 회복 중이다. 체코의 강력한 제공권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비진 운영에도 적은 부담이 생겼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위해 일찌감치 고지대 적응에 공을 들였다. 지난달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사전캠프를 치른 뒤 약 2주 동안 집중 훈련을 실시했다.

솔트레이크시티는 해발 1460m. 조별리그 1·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의 약 1570m 고지대다. 고지대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아 체력 소모가 크고 공의 궤적도 달라진다. 대표팀은 체력과 전술 적응을 동시에 진행하며 본선에 대비했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지만, 원정 대회 최고 성적은 아직 16강에 머물러 있다. 카타르에서 다시 한 번 16강에 올랐던 태극전사들은 이제 사상 첫 원정 8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 출발점이 될 체코전 결과가 북중미 월드컵 여정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준비 과정은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사전 캠프 평가전에서 트리니다드토바고를 5-0으로 대파한 데 이어 엘살바도르도 1-0으로 제압했다. 두 경기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공수 밸런스를 점검했고, 지난 3월 유럽 원정 2연패의 아쉬움도 씻어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손흥민(LAFC)을 중심으로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등 유럽과 핵심 자원들이 공격을 이끌 전망이다. 특히 주장 손흥민에게는 이번 대회 의미가 남다르다.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어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나서는 손흥민은 한국 선수 최다 월드컵 출전 타이 기록에 도전한다. 또 현재 월드컵 통산 3골을 기록 중인 그는 이번 대회에서 한 골만 추가해도 안정환, 박지성을 넘어 한국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 단독 1위에 오르게 된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지만, 원정 대회 최고 성적은 아직 16강에 머물러 있다. 카타르에서 다시 한 번 16강에 올랐던 태극전사들은 이제 사상 첫 원정 8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 출발점이 될 체코전 결과가 북중미 월드컵 여정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20th Asian Games Aichi-Nagoya 2026

# KIA 김도영·박재현·성영탁, AG 국가대표 발탁

KBO·KBSA,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24명 명단 발표  
훈련 부문 공동 1위 활약...한국, 항저우 이어 5연패 도전

KIA타이거즈 김도영, 박재현, 성영탁이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KBO(한국야구위원회)와 KBSA(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지현 대표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 국가대표팀 24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KIA를 포함해 SSG 랜더스, 삼성라이온즈, KT 위즈,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등 6개 구단이 각각 3명씩 선발됐고,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는 2명씩 이름을 올렸다.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는 1명씩 승선했다.

KIA에서는 내야수 김도영, 외야수 박재현, 투수 성영탁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슈퍼스타’ 김도영은 명실상부 대표팀 최고의 전력이다.

2024시즌 리그 MVP인 그는 그해 141경기 544타수 189안타 38홈런 109타점 143득점 40도루 타율 0.347로 리그를 점령했다.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최소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등 다양한 대기록을 쏟아내기도 했다.

올해 WBC에서도 5경기 20타수 4안타 1홈런 4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보였다.

올 시즌에는 62경기에서 63안타 19홈런 52타점 타율 0.278의 성적을 작성했다. 특히 홈런 부문에서는 오스틴과 함께 공동 1위에 오르며 뛰어난 장타력을 선보이고 있다.

박재현은 올 시즌 KIA의 떠오르는 ‘히트 상품’이다. 프로데뷔 2년 차인 그는 올 시즌 58경기에서 59안타 8홈런 30타점 12도루 타율 0.282를 기록하며 만개한 능력을 뽐내고 있다. 타선에서는 활약은 물론 특유의 빠른 발을 활용해 공·수·주를 모두 갖춘 리드오 프로 맹활약 중이다.

성영탁은 올 시즌 팀의 뒷물

을 지키는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3경기 27.1이닝 2승 1패 9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점 1.32로 뛰어난 성적표를 그리는 중이다.

이외에 투수부에서는 김영우(LG),

조병현(SSG), 배전승(삼성), 박영현·소형준·오원석(이상 KT), 최준용·김진욱(이상 롯데), 광빈·최민석(두산)이 올랐다. 포수는 조형우(SSG), 김진희(키움)가 책임진다.

내야수는 문보경(LG), 노시환(한화), 정준재(SSG), 이재현(삼성), 김주원(NC), 박준순(두산)으로 구성됐다. 외야수는 문현민(한화), 김지찬(삼성), 윤동희(롯데)가 나선다.

이번 대회 야구 종목은 오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아이치 오카자키시에 있는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과 아이치 도요하시의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치러진다. 대회 기간 KBO 리그는 중단 없이 진행된다.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대회까지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한국 야구는 5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



내야수 김도영, 외야수 박재현, 투수 성영탁